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지연행동 매개효과 검증

김수현¹, 박정은^{2*}

¹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조교수, ²계명문화대학교 보건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ropout Intention :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Soo-Hyun kim¹, Jung-Eun Park^{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and Health, Vision College of Jeonju

²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Health,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J대학교 218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1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학업지연행동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5%의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전문대학,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First, does the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influence the intention to drop out? Second, does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college students about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dropout,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Baron and Kenny's procedure, and the significance was verified by Sobel ver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nd academic delay behavio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Academic stress showed 15% of explanatory power as an influential factor on dropout intention, and 5% of explanatory power was an influential fact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Third, the through mediation analysis, there was partial mediated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ropout inten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o improve the dropout int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educators should carefully design and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College Education,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This article is extended and excerpted from the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2020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Fall Conference

*Corresponding Author : Jung-Eun, Park(park-jungeun@kmcu.ac.kr)

Received January 8, 2021

Revised February 4,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전문대학은 직업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4년제 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유형 중 하나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 가능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학력위주 풍토는 전문대학의 장점을 무기력시켰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전문대학생은 전공선수지식 부족으로 인한 학업적 부담감이 있고[2] 기초학습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함[3]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지루함, 분노, 불안과 같은 학업정서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4]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차원에서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학생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상황에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에는 대인관계, 학업, 진로문제, 취업[5], 장애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6], 인문계열에서는 대인관계, 자연계열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예술계열은 가족적 스트레스[7]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5-7]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중고등학교 시절 못지않게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적은 취업과 진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의 장애와 취업과 관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며, 그 중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4]. 또한 중도탈락의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과 및 대학생활적응도, 대학생활만족도, 진로정체성, 전공의 취업전망도 및 가정환경·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8-12]. 특히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중도탈락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도, 전공 적성 및 진로 부합도가 높을 경우 중도탈락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생들은 2~3년 수업기한 내에 학점을 이수하고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대학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고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기 쉬움을 의미한다.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며, 학업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13].

학업지연행동이란 해야 할 과제나 시험공부를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을 의미한다[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레포트 작성, 중간 및 기말 시험 공부, 읽기 과제 등에서 학업지연행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5], 박영순[16]의 전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연구에서는 55~77%가 시험공부, 교재읽기,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지연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루기 행동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시험공부, 보고서 작성, 수업에 늦게 오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지연행동을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이라 정의한다면 전문대학생들이 본인의 미루기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룬다는 것은 대학차원에서 학업지연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학습경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학습자는 초인지전략과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공적인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17, 재인용]. 이는 학업지연행동이 시험공부, 과제수행 등에 실패를 초래하여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8],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업스트레스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6].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이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원이고,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려해 볼 때,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 인한 부적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인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행동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중도탈락의도와 학습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매개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설계하고 실천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J대학교 남, 여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약 1주일간 총 230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학교 수업과 시간 강사,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적절히 시간을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 전에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안내 사항을 설명 해 드리고 동의하는 경우에 설문을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한 줄로 답변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18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에서는 남자 64명(29.4%), 여자 154명(70.6%)로 나타 났으며, 공학계열 137명(62.8%), 사회계열 81(37.2%) 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전경우·김교현·이준석[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8가지 영역 50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1가지 영역 학업문제 7문항 영역만 발 취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의 경험빈도와 사건의 중요도를 각각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는 경험빈도×중요 도로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중도탈락의도 척도는 김지영[20]이 개발한 도구를 이유리[21]가 개정한 척도를 본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 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 요인(학교 의도, 학생의도, 부모의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중도탈락의도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학업지연행동의 측정도구는 Aitken(1982)의 지연행 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박재 우[22]가 변안하고, 백경희[23]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 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사용하도록 타당화 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이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지연행동의 경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 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업스트레스가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변인의 효과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 된 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학업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중 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 매개변인인 학업 지연행동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중도탈락의도에 유의 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유의한 베타계수가 매개변수인 도입되 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면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 이 완전 매개 변인이 된다. 또는 베타계수가 감소하지 만 여전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 고 본다. 마지막으로 Sobel(1982) 검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변인별 기술통계 결과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5.5점(16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의도 평균은 2.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연행동 평균은 3.2점(5점만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academic stress	1.00	16	5.49	2.64
dropout intention	1.18	4.41	2.19	0.65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2.00	5.00	3.17	0.33

3.2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 상관관계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correlation

	academic stress	dropout inten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dropout intention	.393**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214**	.01*	

*p<.05, **p<.01

Table 2에 제시한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중도탈락의도와 양(+)의 상관($r=.393,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과 양(+)의 상관($r=.214,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과 종속변인인 중도탈락의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r=.01, p<.05$)

3.3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 Table 3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3.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t	F	R ²
	B	Standard error				
academic stress	.089	.014	.393	6.28***	39.44***	.15

***p<.001

Table 3에서 보면 학업스트레스 변수 β 값은 .393($p<.001$)로 중도탈락의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1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39.4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 Table 4은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4.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t	F	R ²
	B	Standard error				
academic stress	.023	.007	.214	3.22***	10.38**	.05

p<.01, *p<.001

Table 4에서 보면 학업스트레스 변수 β 값은 .214($p<.001$)로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10.38($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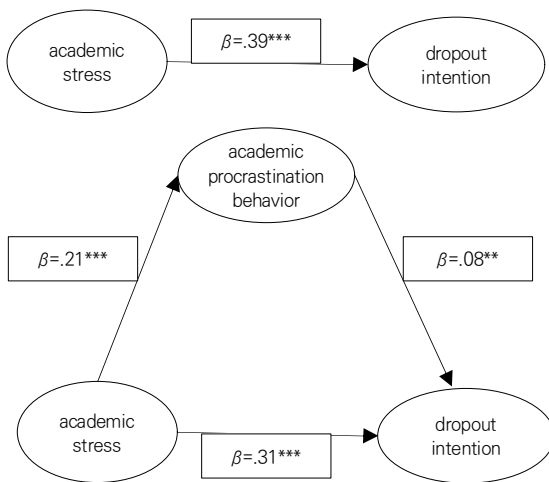
3.5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지연행동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건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지연행동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하였다. 독립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 매개변인으로 학업지연행동, 종속변인으로 중도탈락의도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Fig. 1은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지연행동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 Mediated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o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step	Variable	β	t	F	R ²
1	① → ②	.21	3.22***	10.38**	.046
2	① → ③	.39	6.28***	39.44***	.154
3	① ② → ③	.31 .08	6.4*** 1.2**	20.49***	.160

① academic stress ②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③ dropout intention / *p<.05, **p<.01, ***p<.001



p<.01, *p<.001

Fig. 1. Mediated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o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behavior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21$, $p<.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력($\beta=.39$, $p<.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학업지연행동의 영향력이($\beta=.08$, $p<.01$)이 유의하면서도 학업스트레스 영향력($\beta=.39$ 에서 $\beta=.31$)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7.99$, $p<.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학업스트레스가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도 높다는 선행연구들[24-27]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탈락의도를 가진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채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중도탈락의도가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들이 대학생활만족도 저하 원인과 중도탈락의도 이유에 대해 분석할 때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은 학습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도탈락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선행연구를[28] 고려하면,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및 학업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저해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지연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요인과 중도탈락의도 간의 선행연구들 [10-12]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의 경험 빈도를 높여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학습전략개발을 할 때 학업과 관련된 행동, 습관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습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업지연행동, 학습몰입, 시간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전략을 습득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 작성하기 등에 대한 학업지연행동 이유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공포와 과제 혐오를 지적하였다. 이 중 실패에 대한 공포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완벽주의, 평가불안으로 나타났으며, 과제 혐오 요인에는 과제에 대한 열정의 부족과 혐오감으로 나타났다[23]. 이에 대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과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수준에서 적절하게 약간 상향된 기준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지연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업지연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한 학습프로그램 구성 시 학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의 주 스트레스 요인인 공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보고서 작성, 시험, 지루한 강의[16],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9,30]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고, 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대학생 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학의 교수학습지원과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습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행동 관련 요인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운영이 진행된 시기에 조사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대면 수업환경의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행동, 중도탈락의도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과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행동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 성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S. Choi & Y. C. Lee. (2013). Measures to reduce Students' Withdrawal Rate : a case study on College 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979-987
DOI : 110.5392/JKCA.2013.13.11.979
- [2] J. A. Song & J. S. Jang. (2010).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119-144.
- [3] S. I. Na, C. Y. Jyung, D. Y. Park & H. S. Lee. (2002). The Current Level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on Learning Competencies Required for Junior College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4(3), 91-106.

- [4] S. J. Kim, K. H. Ye & K. H. Hong. (2016). Study of the Academic Stress of Students in the Dept. of Optometry, *The Korea Journal of Vision Science*, 18(1), 65-75.
- [5]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health psychol.* 9(1), 25-52,
- [6] H. J. Park. (2002). *A study on the types of life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s of college students* M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 [7] J. W. Jo.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tress and the Way of Coping with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Art, and Physical Education. M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8] S. S. Kim, (2008). A exploratory study on withdrawal and transfer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influence of college-choice reason and satisfaction afterward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1), 227-249,
- [9] J. H. Kim, (2013).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tudent Drop-Out in Online Universities, *Journal of Cyber Education*, 7(2), 1-16,
- [10] B. R. Yeon & H. W. Jang, (2015). Temporal aspects and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1). 129-155.
DOI : 10.32465/ksocio.2015.25.1.006
- [11] H. S. Park. (2017).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College Freshmen's Intention of Dropout: Focused on C-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5), 423-442.
- [12] M. W. Nam, H. D. Lee & E. J. Baik.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Influential Factors on Academic Dropout Intention of Local University Freshmen, *Soonchunhyang Humanities Thesis*. 35(4), 147-174.
- [13] Y. E. Lee. (2014). A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0(4), 79-101.
- [14] L. J. Solomon & E. D. Rothblum. (199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15] B. R. Jeon, H. Y. Jung & S. J. Yune. (2016). The effects of life goal and achievement goal on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313-334.
- [16] Y. S. Park. (2020).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Flow as Improvement Factors i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359-379.
- [17] J. W. You. (2012).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Regulated Learning, Fear, Academic Self-Efficacy, and Perceived Academic Control in e-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8(3), 249-271.
- [18] S. H. Park & E. H. Seo, (2005). Women college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2), 115-134.
- [19]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20] J. Y. Kim. (2008). Relationship among Athletes' Stress, Anxiety, Aggression, and Dropout Intention in Secondary Education,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21] Y. R. Lee. (2011).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of dancers majoring in dance on the intention to dropout,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22] J. W. Park. (2007). Comparison between perfectionism model and dysfunctional attitude model of college students' procrastin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50-251.
- [23] K. H. Baek. (2007).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24] S. B. Han & J. W. Kim. (2015).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Dropout in Junior College: Focused on the Indirect Effects of College Experienc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3), 405-426.
- [25] W. Y. Yun & S. H. Kim, (2020).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 Accounting Department on Dropout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Tax Accounting Research*, 0(65), 193-211.
- [26] M. J. Ko & B. Y. Choi.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6), 81-104.
DOI : 10.21509/KJYS.2017.06.24.6.81

- [27] T. Y. Kwo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S
- [28] J. Y. Kim, E. J. Kim & J. S. Kim. (2018). The Medi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4(1), 53-73.
- [29] J. M. Lim. (2020). Educ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3), 105-115.
DOI : 10.21184/jkeia.2020.4.14.3.105
- [30] S. M. Lee & N. M. Yang. (2011).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ing on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717-738.

김 수 현(Soo-Hyu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BK Post Doc.
- 2010년 3월 ~ 2018년 7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학, 교수설계, 전문대학 교육, 학습과정
- E-mail : kflic5084@hanmail.net

박 정 은(Jung-Eun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계명대학교 예술치료학과(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통합예술치료, 전문대학 교육

- E-mail : park-jungeun@kmcu.ac.kr